

보관업, 정보통신업,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등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확대되며 2.5% 올랐다.

지출항목별로는 민간소비가 내구재 개선에 힘입어 2016년 동기 대비 2.6% 증가했다. 건설투자는 토목 건설 감소세가 소폭 완화했으나 건물 건설 증가세가 다소 둔화하며 8.0% 늘어난 등 증가폭이 줄었다. 설비투자는 큰 폭의 기계류 투자 증가세가 지속되며 2016년 동기 대비 16.3% 올랐다. 지식재산생산물투자는 연구개발과 기타지식재산생산물 투자가 모두 늘며 2.9% 증가했다. 수출은 4.4%, 수입은 7.4% 증가했다.

2017년 4분기 원계열 기준 실질 GDP는 2016년 동기 대비 2.8% 늘었다. 경제활동별로는 농림어업이 1.5%, 제조업은 2.7% 증가했다. 건설업은 2.7%로 증가폭이 감소했고 서비스업은 문화와 기타 서비스업 감소 등으로 증가세가 소폭 둔화한 2.4%를 기록했다.

지출 측면에서는 민간소비가 준내구재, 비내구재 개선 등으로 증가세가 확대되며 2016년 동기 대비 3.4% 올랐다. 건설투자는 토목 건설 감소폭 확대, 건물 건설 증가세 둔화 등으로 2016년 동기 대비 3.8%로 증가폭이 줄었으며, 설비투자도 운송장비 투자 감소가 지속되는 가운데 기계류 투자 증가세가 둔화하며 2016년 동기 대비 8.6%로 증가폭이 줄었다. 지식재산생산물 투자는 기타지식재산생산물 개선 등에 힘입어 3.5% 늘었으며, 수출은 2016년 동기 대비 0.6% 감소, 수입은 2016년 동기 대비 4.1% 증가했다.

물가

■ 소비자물가 동향

〈소비자물가〉

2017년 소비자물가는 농·축·수산물 가격 상승, 국제유가 상승 등 공급 측 압력으로 2016년 대비 1.9% 상승했다.

품목별로 보면 농·축·수산물은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에 따른 축산물 가격 상승, 여름철 폭우·폭염에 따른 작황 부진으로 인한 농산물 가격 강세 등으로 2016년 대비 5.5% 상

승했다. 공업제품은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석유류 가격 상승(2016년 대비 7.7%) 등으로 1.4% 상승했다.

전기·수도·가스는 전기요금 인하(2016년 2월~, -11.6%) 등으로 2016년 대비 1.4% 하락했다. 집세는 신규입주 물량 증가 등으로 전·월세 가격 상승폭이 둔화하며 1.6% 상승했다.

주요 품목 연평균 등락률

(단위: %)

구분	상승 품목	하락 품목
농축수산물	귤(78.2), 달걀(43.7), 돼지고기(6.2), 오징어(49.9), 감자(26.0), 포도(14.6)	배추(-18.3), 쌀(-5.4), 배(-7.1), 현미(-6.4), 마늘(-6.4), 파(-5.5)
공업제품	휘발유(6.4), 경유(8.6), 자동차용LPG(12.7), 맥주(6.2), 이동복(3.7), 대형승용차(3.1)	보디워시(-22.0), 삼푸(-14.9), TV(-8.7), 커피(-5.6), 화장지(-5.1)
전기·수도·가스	도시가스(3.5), 상수도료(1.5)	전기료(-6.3), 지역난방비(-2.5)
집세	전세(2.9), 월세(0.1)	
공공서비스	하수도료(12.4), 외래진료비(2.6), 약국조제료(3.5)	방송수신료(-0.5), 국공립대학교 납입금(-0.3)
개인서비스	보험서비스료(19.5), 공동주택관리비(5.1), 구내식당 식사비(2.8), 김밥(7.8)	해외단체여행비(-2.6), 골프 연습장이용료(-1.5), 택배이용료(-0.6), 치과보철료(-0.5)

〈생활물가 및 근원물가〉

구입 빈도와 지출비중이 높아 서민생활과 밀접한 생활물가는 2016년 대비 2.5% 상승했다. 신선식품 물가의 경우 신선과일이 15.0% 상승하며 2016년 대비 6.2% 상승했다.

물가의 기초적 흐름을 보여주는 농산물과 석유류를 제외한 근원물가는 2016년 대비 1.5% 상승하는 등 안정세를 지속했다.

생활물가 및 근원물가 등의 상승률 추이

(2015=100, 단위: %)

구분	품목수	가중치	전년대비 등락률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생활물가	141	551.6	4.4	1.7	0.7	0.8	-0.2	0.7	2.5
(식품)	81	191.5	6.3	2.3	0.8	0.5	2.4	2.6	3.3
(식품이외)	60	360.1	3.5	1.5	0.7	1.0	-1.3	-0.4	2.0
농산물 및 석유류제외지수	407	901.4	3.2	1.7	1.6	2.0	2.2	1.6	1.5
신선식품지수	50	40.3	6.3	5.9	-1.3	-9.3	2.1	6.5	6.2

〈지역별 소비자물가〉

17개 시도별로 2016년 대비 소비자물가 동향을 보면 제주 2.3%, 광주·전남은 2.1%, 서울·부산·대전·경기는 1.7~2.0%, 경남은 1.6% 상승했다.

특별시·광역시를 제외한 30개 도시별로 2016년과 비교하면 강릉, 제주, 충주 등 8개 도시는 2.1~2.5%, 수원, 천안, 전주 등 14개 도시는 1.9~2.0%, 창원, 구미, 춘천 등 8개 도시는 1.5~1.8% 상승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 추이

(단위: %)

구분	품목수	가중치	전년대비 등락률				
			2013	2014	2015	2016	2017
〈총지수〉	460	1,000.0	1.3	1.3	0.7	1.0	1.9
- 상품	308	448.1	1.0	0.9	-0.7	-0.6	1.9
(농축수산물)	73	77.9	-0.6	-2.7	2.0	3.8	5.5
(공업제품)	231	325.8	0.9	1.3	-0.2	-0.5	1.4
(전기·수도·가스)	4	44.4	4.5	3.9	-7.4	-9.2	-1.4
- 서비스	152	551.9	1.5	1.6	1.8	2.3	2.0
(집세)	2	93.2	2.7	2.3	2.5	1.9	1.6
(공공서비스)	32	145.1	0.7	0.7	1.2	1.5	1.0
(개인서비스)	118	313.6	1.6	1.7	1.9	2.7	2.5

지역별 소비자물가 상승률 추이 (전년대비, 단위: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2.0	1.8	2.0	1.9	2.1	1.7	1.9	2.0	2.0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0	2.0	1.9	1.9	2.1	1.8	1.6	2.3	

■ 생산자물가 동향

2017년 생산자물가는 연평균 3.5% 상승했다.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등에 따른 공산품 가격 상승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기간별로 보면 1분기 4.2%, 2분기 3.3%, 3분기 3.4%, 4분기 3.0%로 하반기로 갈수록 상승폭이 둔화했다.

품목별로 보면 농림수산물 가격 상승세는 2016년 5.8%에서 2017년 6.4%로 확대됐으며 공산품도 유가 상승에 따른 석유류 제품 가격 등이 올라 2016년 -3.5%에서 2017년 4.8%로 상승 전환했다.

전력·수도·가스는 유가 상승에 따른 연초 도시가스 요금 인상 등으로 2016년 -8.3%에서 2017년 1.0%로 상승 전환했다. 서비스 요금은 금융 및 보험 등이 올라 상승폭이 2016년 1.2%에서 2017년 1.5%로 다소 확대됐다.

생산자물가 상승률 (전년동기대비, 단위: %)

구분	(가중치)	2016	2017				
		연간	연간	1/4	2/4	3/4	4/4
생산자물가	<1,000.0>	-1.8	3.5	4.2	3.3	3.4	3.0
상 품	<650.4>	-3.4	4.6	5.8	4.3	4.4	3.7
농림수산물	<36.5>	5.8	6.4	7.8	8.4	8.1	1.5
공산품	<560.4>	-3.5	4.8	6.5	4.3	4.1	4.2
전력·수도·가스	<50.9>	-8.3	1.0	-3.0	2.1	5.1	0.1
서비스	<349.6>	1.2	1.5	1.3	1.6	1.5	1.7

■ 수출입물가 동향

2017년 수출·수입물가(원화기준)는 2016년에 비해 상승했다. 수출물가는 일반기계, 수송장비 등이 하락했으나 석탄·석유 및 화학제품이 상승하면서 연중 6.1% 상승했다.

수입물가도 국제유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원재료 가격이 상승 전환하면서 2016년보다 6.5% 상승했다.

수출입물가 동향 (전년대비, 단위: %)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수출물가	-2.4	-4.3	-6.0	-5.2	-3.3	6.1
농림수산물	-2.8	-12.4	-6.0	-0.3	11.3	7.4
공산품	-2.4	-4.2	-6.0	-5.2	-3.4	6.1
수입물가	-0.7	-7.3	-7.5	-15.3	-4.2	6.5
원자재	1.2	-7.8	-9.8	-34	-14.0	24.2
중간재	-2.9	-7.8	-7.4	-8.5	-2.0	3.3

■ 2017년 소비자물가 변동의 주요 특징

2017년 중 소비자물가는 2016년 대비 1.9% 상승했다. 국제유가 상승 등 공급 측 압력에도 불구하고 물가안정 목표인 2% 이내의 안정세를 지속했다.

기간별로 보면 1분기 중 2.1%(2016년 동기 대비), 2분기 1.9%, 3분기 2.3%, 4분기 1.5%로 4분기 상승세가 둔화했다.

품목별로 보면 전기가스수도 요금은 하락했고, 농축수산물, 석유류 가격은 상승폭이 확대했다.

품목별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년동기대비, 단위: %)

구분	가중치	2014	2015	2016	2017				
					연간	1/4	2/4	3/4	4/4
소비자물가	<1,000.0>	1.3	0.7	1.0	1.9	2.1	1.9	2.3	1.5
농축수산물	<77.6>	-2.7	2.0	3.8	5.5	6.1	6.1	8.4	1.4
(농산물)	<44.1>	-10.1	1.2	3.8	4.6	4.7	3.6	10.2	-0.1
(축산물)	<22.1>	9.5	3.7	4.4	6.5	8.6	9.6	6.7	1.3
(수산물)	<11.3>	2.0	1.0	2.9	6.8	6.6	7.4	5.9	7.1
공업제품	<326.6>	1.3	-0.2	-0.5	1.4	2.1	1.3	0.9	1.5
(석유류)	<56.7>	-4.3	-19.2	-8.1	7.7	12.0	7.7	3.4	8.0
전기·수도·가스	<49.0>	3.9	-7.4	-9.2	-1.4	-6.9	-2.4	8.0	-3.3
집세	<92.8>	2.3	2.5	1.9	1.6	1.7	1.8	1.6	1.4
공공서비스	<142.6>	0.7	1.2	1.5	1.0	1.0	1.0	1.0	0.8
개인서비스	<311.4>	1.7	1.9	2.7	2.5	2.7	2.5	2.3	2.5

농·축·수산물은 기상여건 악화, 기저효과 등으로 가격이 모두 상승하며 2016년 대비 5.5% 상승했다.

농산물은 2016년 낮은 가격에 따른 기저효과, 여름철 폭우·폭염에 따른 작황 여건 악화 등으로 2016년 대비 4.6% 상승했다. 축산물은 시 발생에 따른 계란 가격 상승 등으로 6.5% 상승했으며, 수산물은 오징어 등 대중성 어종 생산량 감소로 6.8% 상승했다.

공업제품의 경우 의약품, 화장품 가격 등이 하락했으나 석유류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여 공업제품 전체로는 2016년 대비 1.4% 상승했다.

석유제품은 국제유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휘발유, 경유 가격 등이 상승하며 7.7% 상승했고, 가공식품은 국제곡물 가격 안정 등으로 0.9% 상승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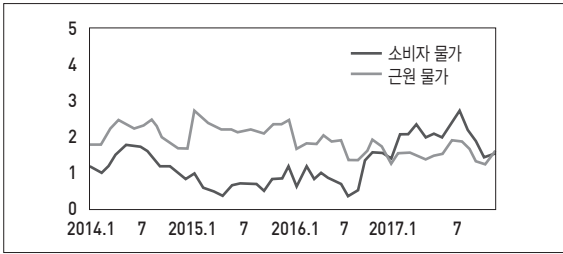
전기·수도·가스는 2016년 전기요금 인하, 지역난방비 인하 등의 영향으로 2016년 대비 1.4% 하락했다. 공공서비스는 하수도로, 택시 등 지방 공공요금 인상으로 1.0% 올랐으며, 집세는 신규입주 물량이 증가하며 2016년 대비 상승폭이 하락한 1.6% 올랐다.

개인서비스의 경우 외식, 외식 제외 서비스가 모두 증가하며 2016년 대비 2.5% 상승했다.

외식비는 농·축·수산물 가격 상승, 소주 가격 인상 등으로 2.4% 올랐고, 외식 제외 개인서비스는 승용차 임차료 등이 하락했으나, 자동차 학원비, 보험서비스료 등이 인상돼 2.6% 상승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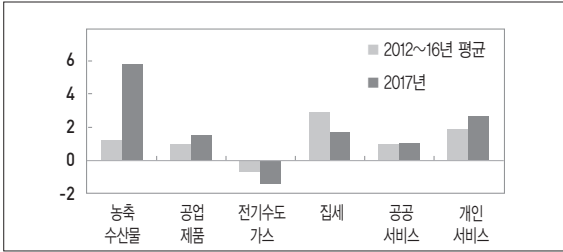
최근 물가 동향

(전년동월비, 단위: %)



부문별 물가상승률

(전년동월비, 단위: %)



통화·금융

■ 통화

2017년 11월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해 연 1.50%로 운용하기로 했다. 이전의 기준금리 1.25%는 2016년 6월 이후 지속돼 온 것이다.

국내경제가 높은 수출 증가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소비가 완만하게 개선되고 투자도 양호한 흐름을 보이며 견실한 성장세를 지속한 데 따른 것이다. 또 향후 소비와 설비투자 등 내수가 완만한 개선 흐름을 이어가고 글로벌 경기 회복세 확대와 대중교역여건 개선 등으로 수출도 호조세를 지속할 것으로 봤다.

경기회복세가 지속되면서 물가상승률이 점차 목표수준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그동안 저성장·저물가에 맞춰 확대해 온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도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3분기까지 공개시장 운용은 전기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면서 시장상황 변화에 따라 수단별 운용규모를 신중적으로 조정하는 방향으로 이뤄졌다. 4분기 중에는 유동성조절 필요규모(편자기준)가 화폐발행액 증가 등으로 전 분기보다 감소했다.

이런 가운데 기준금리 인상 기대 등으로 시장금리가 상승하면서 채권 수요가 위축되자 한국은행은 통화안정증권 발행 축소를 통해 탄력적으로 유동성을 조절했다.

9월에는 「2017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에 따라 금융중개 지원대출제도를 개편·시행했다.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신성장·일자리 지원프로그램으로 확대·개편해 신성장동력 발굴 및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하는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했다. 또 연구개발투자에 비중이 큰 중소기업 등을 지원 대상에 포함하

고 지원 비율을 우대하기로 했다. 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지원 대상의 상시근로자 요건을 5인 이상에서 3인 이상으로 완화하고 운용을 상시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대기업 구조조정 등으로 경영과 고용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지방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의 특별지원제도 운용을 재개했다.

또한 중소기업대출안정화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중소기업 자금사정을 고려해 필요시 운영하기로 했다. 설비투자지원 프로그램과 순증액 기준 무역금융지원 프로그램은 한시운용 기한도래에 따라 신규 지원을 종료하기로 했다. 2016년 3월 한시적으로 확대한 한도 5조원에 대한 운용을 상시화해 금융중개 지원대출의 총한도를 25조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광의의 통화(M2)의 경우 2017년 중에 5.5% 증가해 2016년 대비 증가율은 소폭 둔화했다. 가계부채 증가세 둔화 등으로 민간신용이 축소되고 서비스수지 악화로 경상수지 흑자 폭이 축소된 것이 주된 원인이다. 협의통화(M1)와 금융기관 유동성(L)도 수시입출식예금과 M2 증가세 둔화 등으로 각각 증가율 9.2%, 6.6%를 기록하며 2016년 대비 증가율이 낮아졌다.

주요 통화지표 증가율

(편잔 원계열, 전년동기비, 단위: %)

구분	2016	2017				
		연중	1/4	2/4	3/4	4/4
L1	8.1	6.6	7.5	7.1	6.2	5.9
M2	7.3	5.5	6.3	6.2	4.7	4.7
M1	15.5	9.2	10.6	9.6	8.8	7.9
본원통화	13.9	10.5	10.9	10.5	9.5	11.1

주: 한국은행 ecos

■ 금리

2017년 금리는 국내외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 변화와 북한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 경제상황 개선 전망 등의 영향으로 연초엔 제한된 범위에서 등락했으나, 하반기 들어 기준금리 인상 기대 등으로 점차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단기금리는 제한된 범위에서 등락하는 가운데 단기 수신 증가(자산운용사 MMF 수신 잔액 사상 최고치 기록, 5.17일) 등으로 9월까지 하락세를 이어갔다. 2016년 중 평균 1.49%였던 CD 금리는 2017년 3분기에 1.39%로 하락했다. CP금리는 2016년 중 1.62%에서 2017년 3분기에 1.59%로 하락했다.

그러나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 등으로 10월 말 이후 단기금리는 상승세를 보이다 11월 기준금리 인상과 함께 큰 폭으로 상승했다. CD금리는 연말 기준 1.50%, 2017년 중 평균은 1.44%로 2016년 평균 1.49%에서 소폭 하락했다. CP금리는 연말 기준 1.70%를 기록하며 2016년 평균 1.62%에서 2017년 중 평균 1.64%로 소폭 상승했다. 콜금리도 연중 제한적인 움직임을 보이다 4분기에 비교적 큰 폭으로 상승하며, 2016년 평균 1.25%에서 2017년 1.23%로 소폭 하락했다.

채권 금리 등 장기금리는 국내외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변화 등의 영향을 받으며 국고채 3년물의 경우 2016년 평균 1.44%에서 2017년 평균 1.80%로 큰 폭 상승했다. 연초에는 미국 통